

흔히들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있다. 왜 산에 가니?

정말 명쾌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은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 이유를 알기위해 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럴땐 내가 역으로 반문한다. 취미생활을 비유해서 축구를 좋아한다면...년 왜 축구를 하는데? 그러면 단지 재미있다는 이유다. 물론 부차적인 이점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산에 다니는 이유가 그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산사람들과 즐거워하며, 같이 땀을 흘리며 같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기에 산에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와서 산에 다닌 게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된 시점에서, 무언가 더 다른 만년설이 있는 새로운 산을 욕심을 점점 산에 다니면서 생기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축구선수가 무슨 대회에서라도 우승을 하고 싶은 욕구인 것처럼, 개인적으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추어 달려가는 것이다.

산에 다니면서 누구나가 꿈꿔오는 하얀산이라는 게, 내 눈앞에 거대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일부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서 이번 2004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고학년인 시점에서 어찌 보면 그만큼의 국내산행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부분일수 있지만, 내 자신의 포부와 욕심에 국내 산행을 벗어나 해외의 어떤 산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기에 청소년 오지탐사를 신청하게 되었고, 나에게겐 소중한 기회였고 경험이고, 추억이었다.

파미르 고원 알라이 산맥에 대해서..



유라시아대륙의 중앙부에 솟아 있는 이 황량한 산악지대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비경이다. 파미르라 불리는 이 변경의 바위투성이 지역은 산이 많은 높은 고원이다.

대부분은 구소련 영내지만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에도 있다. 깎아지른 봉우리들, 뾰족한 능선, 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계곡 등 이 지역의 냉엄한 경관은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산맥이 맞부딪치는 파미르고원은 6100m가 넘는 100개 이상의 봉

우리들과 37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는 계곡들을 포함하는 산과 고원의 집합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7495m의 콤유니즘봉으로 이는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다.

파미르라는 이름은 산봉우리들의 기슭이란 의미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슭이란 이 일대의 기후가 험악하고 녹지대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원주민인 키르기스족이 양과 염소를 방목하고 있는 고지대의 넓은 구릉들을 가리킨 말이다.

7월19일 발대식

13:00 집결(포스코4거리, 동부빌딩 건너편 금성호텔)
17:00 2004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 발대식 (과천 코오롱 빌딩 1층)
19:00 석식 후 해산 20:30 숙소 도착 1:00 장비,식량 포장 완료

드디어 내일 떠난다는 생각에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차 있다. 과연 우리가 가는 새로운 오지의 세계란 어떠한 곳이며, 만년설의 느낌은 어떠할지...

하지만 준비하고 점검하는데 있어, 각자 맡은 별 대원들이 해야하는데, 경험이 부족해선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아직도 그 정체성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처음가는 해외인지라 많이 긴장되고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 그전에 현조형 북극갈 때 도와준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드디어 내일 출발이다. 재미있게 갔다와서 대원들과 그 즐거움으로 술 한잔 하고 싶다.



7월20일

서울타슈켄트(시차 4시간 늦음)

05:00 기상 06:10 서울 도심터미널 출발 07:10 인천공항 도착
10:15 타슈켄트 행 출발 13:40(현지 시각) 타슈켄트 도착
15:20 숙소(엘레나 호텔) 도착
16:30 현지 식량구입 및 환전, 매식(만나식당)
20:00 숙소 도착

처음 타는 비행기라 많이 긴장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입벌리고 잘도 자는데 나만 멍하니 벽만 보고 심심해 죽을려고 했다. 우리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려니 갑갑하고 환장할 지경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사막지대여서 인지 물부족 국가이다. 먹는 물도 사서 먹고... 오히려 먹는 물에는 가스 CO2를 넣어서 팔기도 한다. 현지인 말로는 이곳 사람들은 가스 넣은 물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마셔보면은 우웁... 못 먹겠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전하기란 무지 어려웠다. 나라 내에 돈이 없다면 거절당해가면서 나중에서야 겨우 가능했다. 돈이 돌아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도 살아날텐데..

4시간의 시차때문인지(?), 비행기내에서 잠을 못자서인지 점점 피곤이 밀려온다.

이게 고소증상이려나하는 걱정까지 된다.

7월21일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오슈(키르기스스탄) (시차1시간 빠름)

10:30 안그렌(차량환승 버스다마스) 13:20 차닥 (중식 및 차량환승(다마스미니버스))
14:00 차닥 출발 16:30나마칸 18:40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21:00(현지시각) 키르기스스탄 통과 (7ton트럭 환승) 21:30 석식
00:05 오슈 숙소(메나카하 호텔)도착

하루종일 버스를 타면서 이동을 했다. 버스를 타는데도 한 버스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3번의 차량으로 바뀌었다..그 이유는 통역인도 잘 모른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마 도로사정상, 그리고 여행사의 수지타산의 이유인 듯 싶다.. 이동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낯설기만 하다. 주위에 펼쳐진 고원과 들판, 산, 2000m이상을 오르는 고개, 중간에 검문하면서 지키는 경찰과 군인, 그리고 오슈의 경계지역에 포터를 이용하고 가이드도 바뀌면서 새로운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게 됐다.

키르키즈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공산주의적 요소의 잔재가 많은 듯 싶다. 아직 덜 개방된 자본주의적 모습 속에서 선불리 이런 생각을 해본다.

시차도 1시간 빨라지면서 갑자기 또 피곤해진다. 저녁에는 한국인 후손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한국의 락카페를 연상케하는 분위기에 무도회장도 있다. 볼거리도 많고 신기하기만 하다. 단지, 이 나라도 역시 물이 부족한 나라인 듯 물도 직접 돈을 지불해야 하며... 하지만 탄산물은 정말 못 먹겠다.

7월22일 오슈탈딕캠프

07:00 기상 08:00 조식 09:00 오슈출발(시내 휴지,물,비디오카메라 필름.니튽건전지구입)
14:55 탈딕 캠프(2,300m)도착 및 중식 16:40 2,600m무명산 고소적응차 산행
18:00 하산 완료 20:30 석식

공산주의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 약간의 조심스러움과 긴장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탈딕캠프로 향하면서 우리들이 목적하는곳과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추워지고 빙하가 녹아 물도 흐르고, 주위에 융기되고 단층 된 지형의 경관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중간중간에 트럭에서 내려 고소적응을 하고 쉬면서 올라간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탈딕캠프에 도착하였고, 여기에서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고소적응을 하기 위하여 어느 한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비가 내려 대원들의 앞으로의 체력적 부담을 생각하며 하산을 결정한다.

대원 중에 지션이가 많이 힘들어한다. 낮은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듯 싶은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첫 해외산행의 고산 경험이 없어 감히 선불리 다가가기 어려워 미안할 뿐이다.

이 곳 주인인 미키와 나름대로 친해졌다. 어설픈 영어지만 잘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도 많다. 나도 영어가 부족하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다.



7월23일 탈딕코브제네브스키 빙하 카라반 초입

7:30 기상 8:00 조식 10:00 보르도바 행 출발 11:10 3600m고지 휴식 및 사진 촬영
15:00 코브제네브스키 빙하 중간 도착 16:00 중식 22:00 석식 23:40 취침

아침에 여유있게 일어나 출발하였다. 차량으로 3~4시간 걸린다는데...

주위에 높은 언덕을 넘어갈 때 3600m고도에서 내려, 사진찍고 초원에 흩어진 말들과 유목민, 그리고 유목민의 집인 유트에서 뛰어놀다 트럭에 다시 몸을 싣는다.

유목민의 어린애가 horse milk라면서 동글동글 경단처럼 생긴 하얀 것을 선물로 주는데.. 우웻~~ 비유상해 못먹겠다.

중간 보르도바지역 군사경계선(타직스탄)에서 어렵게 통과하고 빙하지대에 들어서는데 트럭이 못갈 것 같아도 힘이 좋게 잘 올라간다. 하지만 가이드도 없이 외국인 트럭기사한테 우리팀을 맡긴게 불안하다.. 그러면서 멈춰서더니 등반팀 일행을 여기서 만나기고 했다고 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일정이 여행사의 계획에 의해 짜여졌다고 하지만, 무언가 확신도 없는데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다.

1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등반 가이드와 쿡이 도착해서는 여기에서 막영을 하고 B.C라고 한다. (3,600m) 우리가 알고 있는 4.400m의 B.C하고는 다른 곳이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듯 싶다.. 빙하지대라고해서 얼음위에서 등을 대고 잘거라 생각했는데. 녹아내린 눈들로 계곡물처럼 부어 오른 물들과 그 주변에 야생화들이 피어있는 황야별판이다.

널 부터는 등반 시작이다.. 무언가 부담이 밀려온다.



7월24일 B.C 이동 (3,600m3,800m)

8:00 기상 8:15 조식 9:20 B.C이동
13:05 B.C도착(3,800m) 11:20 취침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B.C가 생각보다 멀어서 좀 더 위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빙하시작하기 전 까지 말이 짐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장비 및 개인 카고백은 나중에 말로 수송하기로 하고 우리는 좀 더 고소 적응을 하면서 B.C를 어프로치하기로 하였다.

거리상 7라 하는데 실지로 4.8밖에 오지

않았다. 빙하가 흐르는 계곡과 같은 길이라 거의 평지 수준이고, 주위에는 야생화, 에텔바이스 등이 펼쳐져 있다. B.C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어제 가이드가 말한 지점보다 더 못왔다. 하지만 이곳 이상은 말이 이동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1시간 가량 더 올라가서 우리가 갈 곳을 살펴본다. 그나마 지금 자리잡은 곳이 B.C로서는 적당한 듯 싶다. 주위에 모레인 지대로 마땅히 많은 텐트가 들어 서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지점의 진흙밭이 그나마 적당한 듯 싶다.

식량담당인 광섭이가 오늘 힘들어한다. 나랑 성호 그리고 동훈이가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현지인들한테 구입한 양고기도 볶고 된장국과 함께 오랜만에 한국 스타일로 준비했다..

후....-.-; 고향생각....

7월25일 B.C(3,800m)C1 못미쳐 짐 데포 B.C

7:00 기상 8:30 출발 16:00 짐 데포 20:00 B.C도착

C1설치를 위해 모두 올라가기로 하고, 성호는 가이드와 함께 공동장비수송을 했다. 먼저 성호가 가서 C1을 설치하고 우리는 천천히 올라간다. 주변의 모레인 지대와 빙하에 깔린 모레



들 사이로 사람을 삼켜버릴듯한 크레바스지대, 그리고 주변에 얼음으로 형성된 눈처마들이 햇볕이 내리쬐면서 점점 녹기 시작하더니 낙빙이 형성되어 공포스런 존재가 되었다.

전방 C1을 약1정도 남겨두고, 날씨가 오후가 되더니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여 중간지점에 짐을 데포하고 내려간다.

내일 다시 C1으로 가기 위해 모레인 지대를 트레바스 하면서, 넓은 산기슭에 케른으로 표시기 역할을 하면서 내려왔다.

다. 오후8시가 되어서야 도착했지만 아직 해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다행이다. 원래 이런 지역은 오전에 날씨가 좋았다가도 오후가 되면서 눈과 빙하가 녹아 날씨가 안좋아진다고 밤에 출발하여 오전에 산행을 마쳐야 한다고 한다.

오늘이 본격적인 첫 산행인데다 너무 무리해서인지 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자기 일은 잘 알아서 하는 게 팀에게 플러스로 작용한다. 내일 다시 C1으로 가기 위해 조를 편성하고 곧히 잠이 든다.



7월26일 B.C(3,800m)C1(4,300m)이동

8:00 기상 및 조식 9:30 출발(박아숙, 김병권 지도위원, 성호, 동훈, 민진, 나)

11:10 중간 빙하물이 녹아서 30분 기다림 18:00 C1도착

어젯밤엔 지진의 땅이 울리는 소리들었냐면서 아침부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난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죽은 시체처럼 잘 잤다. 아마 어제 산행으로 많이 피곤했나보다.

어제 우리가 가려는 C1의 거리가 7.74이면 국내 산행 같으면 하루에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모레인 지대며 크레바스, 빙하지대를 지나치면서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숨이 차오른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산행 덕분인지 배낭도 가볍고 속도도 빠르다.

중간에 산에 있던 눈이 녹아 우리가 지나갈 길이 부어서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다. 가이드말에 의하면 30분후에는 잔잔해 진다면서 우리의 위치는 위험하니까 자리를 옮겨 기다렸다.

점점 C1으로 향해 가는데 정말 크레바스지대가 어제와 다른 공포스런 존재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일정치 않는 간격으로 낙빙이 떨어지는 소리는 그곳을 통과하는 우리들을 으쓱하게 만들어 버린다.

C1으로 가는 도중에 어제 데포시킨 짐 일부를 메고 , 빙하지대의 남쪽부분 산 중턱의 C1에 도착했다. C1은 바로 옆에 눈이 녹은 물이 흐르고, 안부이여서 바람도 막아주고 정말 사이트는 기가 막히다.

오늘고 C1으로 이동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여기서 C2까지도 오늘 이동한 거리만큼일 텐데.. 내일 나머지 대원들이 오고 또 다시 C2로 이동하여 스파르탁봉으로 접근하는데..하루 종일의 거리가 부담적으로 다가온다..

7월27일 C1 데포 짐 수송 C1(4,300m)

8:30 기상 9:00 조식 10:20 데포 짐 수송하러 출발 12:10 데포 시킨 짐 가지고 C1도착
13:10 포터, 가이드 도착 16:00 대원 마중 18:00 석식

엇그제 데포시킨 짐 일부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 일부 짐을 가지고 오기 위해 다시 출발한다, 분명 엇그제 데포시킨 짐이 더 아래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금방 우리의 발걸음을 짧게 만들었다. 주변 산에 대한 위치적 감각이 떨어진다. C1으로 짐을 다 옮기고 나니까 무언가 뿌듯한 느낌이다.

멀리서 우리 대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힘들게 올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 쉬 우리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내려간다. 무언가 보기 좋은 모습이다.

B.C에서 C1과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스파르탁봉을 등반하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앞으로 C2와의 거리도 이와 비슷한데 주어진 시간과 일정에 비추어 대원들의 체력적 부담에 어려운 산행이 될 듯 싶다.

결국 우리들은 C1을 바라보고 있는 스파르탁키아다봉을 등반대상지로 바꾸고 내일의 산행을 생각한다.



7월28일 A조: 스파르탁키아다 봉 정찰 B조:빙하탐사 및 설상훈련 교육

07:00 기상 10:00 출발 14:00 중식 15:00 빙벽등반 19:00 석식

한조는 우리들이 등반할 스파르탁키아다 봉우리를 정찰갔다오고, 나머지 대원들은 설상훈

련에 있어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하게 되었다. 아이젠을 처음 차보는 대원도 있고, 아직 익숙하지 못한 피켈 등 설상,빙벽에 있어 지식들의 일부를 전해준다.. 아이젠 위크. 안자일렌, 활락정지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숙지해야 할 부분들을 빙하탐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처음 해보는 대원도 있지만 다들 긴장된 눈빛에 재미도 느낀다.



돌아오는 중간에 빙벽등반

의 일부를 느낄 수 있어 힘 한번 쓴다고 조금한 얼음을 찍어 본다. 고산에서 빙벽등반을 해서인지 힘 한번 썼다고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다.. 어느 선배말처럼 머리의 골을 벗어다 물로 씻고 다시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다.. 그전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입술도 부어오르고 머리도 아파온다... 이렇게 고소증세일까...

7월29일 C1(4,300m)무명봉우리 고소순용 (4,600m 도달) C1

04:30 기상 07:00 출발 11:00 글리세딩 및 활락정지 12:30 중식 18:00 석식

우리가 등반하려고 하는 스파르타키아다는 하루에 1000m이상을 올라야하는 봉우리다.. 아직 까지 등반한 적이 없고 그에 따른 정보도 없고.. 정찰대의 말에 의하면 픽스로프도 깔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될 듯 싶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스파르타키아다까지 새벽부터 어프로치하고 등반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은 그리 좋지 만은 않다.

그러기에 하루에 1000m를 오르기에 고소적응이 필요하여, 또 다른 봉우리의 등반으로 고소 적응을 한다.

실질적인 등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접 러셀도 해보기도 하지만, 정말 국내 산행과 달리 5발자국 걷고 헉헉 거린다...꾸준히 천천히 오르면서 미끄러질 듯한 눈발길을 아이젠자국에 의진한다. 대원들도 인내심 있게 올라온다. 정상까지 가고 싶지만 흘러내린 눈뭉치들이 눈사태를 위협하는 듯한 형태를 지닌 봉우이다..그래서 우리는 산 중턱부분에서 안자일렌과 활락정지를 하며, 주마링 훈련을 하면서 점점 적응해 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스파르타키아다 봉의 등반에 대한 긴장감으로 하늘의 허락을 기대한다..

7월30일(정상공격 당일) 코브제네브스키 빙하탐사

03:00 기상 03:40 계획 변경 10:00 빙하탐사출발 16:00 C1도착 18:00 석식

어제 밤사이에 내린 눈이 그칠 줄을 모르고 새벽에까지 우리주변의 세상을 온통 하얗게 만

들어버렸다.. 정상공격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긴장을 하며 잤는지, 새벽에 뒤척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산행을 준비해 본다. 하지만 무릎까지 쌓여진 눈들은 우리의 일정을 불안케하고, 아직 미답봉 인점과 더불어 픽스로프가 설치되지 않아 거기에 맞춘 우리의 일정은 촉박하게 되어 결국 우리들의 정상의 대한 욕망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른 코브제네브스키 빙하 탐사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엣그제 지나왔던 빙하와는 달리 그 빙하 위로 눈이

쌓여있어.. 히든 크레바스에 대한 긴장을 하며 스틱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짚어본다..

모두들 긴장을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이동한다.. 점점 산 기슭으로 다가가니 빙하들이 갈라지고 녹고 모레인들로 섞여있다..

그 중간에 점심을 먹고 우리들의 각자의 기념촬영으로 빙하탐사를 마친다.

물론 등반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자연환경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 그리고 팀이라는 체계와 역할 속에 순응하면서 그 겸손함을 배워간다..



7월31일 C1 B.C

05:00 기상 07:30 출발 15:00 B.C 도착 19:00 석식

C1을 철수 하고 B.C로 내려가는 길에도 구름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는지 내려가는 길마다 눈과 우박을 뿌리곤 한다. C1으로 올라올때는 두 번에 걸쳐서 짐을 수송했지만 이번에는 한번에 내려가니까 개인이 지고 있는 짐 무게만으로도 어깨가 무겁다..

모두들 힘들게 어깨를 추그리고 내려가지만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움직인다..

역시나 다를까 우리가 30분정도 기다린 지점에서 물이 부어 건너기가 힘들었다.. 먼저 내려간 가이드 두 명이 미리 자일을 설치해 놓고는 우리의 안전을 신경쓴다.. 말은 정확히 통하지는 않지만 산행에 있어 웃음을 잃지 않으며..우리를 안내해 준다..

우리의 편안한 안집같은 베이스캠프가 멀리 눈앞에 보인다. C1에서 오래 있진 않았지만..왠지 반갑고 안도감 마저 든다..

아직 산행이 끝난건 아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앞으로의 남은 일정을 대원들과의 재미있고 잘해보자고 결의하며 한잔이 아까운 소주잔은 기울이며 베이스캠프의 마지막 밤은 지나갔다.

8월1일 B.C보르도바 민가

07:00 기상 08:20 조식 9:30 출발 19:00 보르도바 민가 도착 20:30 석식

오랜만의 편안한 잠을 잤던가... 늦잠을 자고 싶지만 오늘 일정을 생각하며 모두가 분주해 한다. 가이드가 처음 B.C라고 말하는 곳까지 우리의 카고짐은 말로 수송하고 그 이후는 트럭으로 레닌봉B.C로 이동하기로 했다... 장비와 수송담당인 성호와 동훈이가 마지막에 확인하는걸로 우리는 먼저 길을 떠났다.. 그러나 내려가는 도중에도 말이 올라오지를 않는다..가이드가 말한 시간이 지나도 말이 오지를 않더니 우리가 목적인지점에 도착해서도 트럭은 오질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식량과 장비는 1박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단 나는 다시 B.C로 올라가서 가이드를 불러서 상황을 말하고, 대원들의 식량을 내릴려고 올라갔다.. 무전기를 통해 연락이 가능하고 우리는 철수하여 보르도바로 내려가길 결정한다. 우리의 일정을 갑자기 바뀐 부분도 있어, 가이드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대체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아무런 확신도 없이 장비도 없이 식량도 없이 이동하는게 맘에 걸렸다..

그러나 다행이 보르도바에 있는 한 민가에 하룻밤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사람이 없는 산에 있다가, 전기도 없



고 물도 빙하물로 그리고 야크들을 유목하며 생활하는 한 가정집에서 직접 생활을 하고, 그 문화를 경험하니 진정 여기가 오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항상 No problem이라고 자신 있어한 가이드가 이런 Big problem이 될 줄야....
우리의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된다..

8월2일 보르도바 민가 레닌봉 B.C 오슈

08:00 기상 09:00 조식 12:30 출발 17:00 레닌봉 B.C도착 18:00 중식 겸 석식
18:40 출발 20:40 탈딕캠프..(석식2차) 00:00 출발 03:30 오슈 호텔 도착

아침에 온다고 한 트럭이 또 배신을 때렸다..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는 무작정 기다렸다.. 그러다 점심때가 되서야 조그만한 미니트럭이 도착했다. 그리고 사리타쉬에서 우리가 타고온 트럭을 만날 수 있었다.. 그 트럭으로 바꿔타서 파미르고원의 대표적인 등반대상지인 레닌봉의 베이스캠프로 이동하였다.

레닌봉B.C는 많은 사람이 등반하는 곳인지 주변에 텐트로 지어진 식당 및 병원, 그리고 각 나라의 도시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식기까지 있었다..이곳에서도 레닌봉 등반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날씨가 좋지 못해서 등정은 못했다고 한다.. 모두들 자연에 수공해가면 사는 것 같다..

날마다 먹은 점심.. 하루 안먹었는데 배가 쪼그려드는 것 같다. 레닌봉 B.C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닭조림, 감자튀김, 빵 등으로 허기를 달래고.... 다시 서둘러서 우리는 오슈로 향해간다....



어두워진 알라이산맥을 등뒤로 오슈를 향해 라이트를 비추며 우리의 오지탐사의 일부인 알라이산맥 탐사를 마치게 되었다...

자신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의지대로 생활하는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수그릴줄도 알고 특히 자연에 대한 겸손함도 느끼고.. 많은걸 느끼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그리고 팀원으로서 멤버십을 발휘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대원들과 저희를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단장님과 대장님, 그리고 지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